

# 위기의 카드사, 안정 vs 새판짜기... CEO 연임 '촉각'

‘실적개선’ 신임 임명진 재선임 관측  
KB 이동철·우리 정원재 연임 무난

‘안정도모’ 롯데, 김창권 유임 확정  
‘세대교체’ 삼성, 원기찬 4연임 귀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카드업계가 경기침체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장 포화 등 대내외로 악화일로(惡化一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과 연초 나란히 임기가 만료되는 CEO(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CEO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과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등 3명이다. 내년 1월에는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임기만료인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최근 유임됐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임영진 사장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임 사장의 연임 여부는 그룹 인사에 달렸다. 통상 신한금융그룹은 ‘2+1’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임 사장은 이미 3년을 채웠다.

그러나 임 사장은 임기 3년 동안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성장을 견인하는 등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4110억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또 임 사장은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강조하는 등 신한카드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사장은 10월 초 신한카드 창립기념식에서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상생활동 강화를 뜻하는 ‘초연결, 초확장, 초협력’을 목표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도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 KB금융지주 역시 사

장단 임기를 ‘2+1’ 운영하고 있어 지난해 취임한 이 사장의 경우 연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 상황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도 실적이 괜찮았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4% 늘었다. 누적으로도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이 사장은 올해 국민카드의 해외진출을 성공으로 이끌며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카드의 해외 첫 자회사인 캄보디아 ‘KB대한특수은행(KB Daehan Specialized Bank)’은 출범 약 10개월 만에 첫 반기 흑자를 기록했다.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은 ‘카드의 정석’ 시리즈의

흥행을 바탕으로 연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 기준 업계 최하위권였던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이 성공하면서 올해 3분기 28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출시된 ‘카드의 정석’은 연내 500만장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최근 유임을 확정했다. 대주주가 롯데그룹에서 MBK파트너스로 바뀌었지만 김 사장을 유임시켜 내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는 원기찬 사장의 4연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

료되는 원 사장의 4연임 가능성은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하며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카드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9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적용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 마케팅을 축소하는 수익성 중심 사업 재편과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 비용 효율화 등 내실 경영의 결과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할인점 제휴 강화로 개인신판 취급고, 회원수가 증가한 영향도 컸다. 개인신판 취급고는 2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났고, 이용가능회원수도 103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 증가했다.

다만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점이 변수다.

게다가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의 암묵적인 ‘60세 퇴진 물’도 관건이다. 최근 삼성그룹은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원 대표는 1960년생으로 내년이면 만 60세가 된다. 원 사장의 연임 여부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와 함께 이뤄진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자사고 폐지 위헌’ 논란 제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  
지식·교육 필요성 간과 의견도

정부의 2025년 자율사립형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일괄 폐지 발표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폐지 추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초·중등교육법’ 법안 분석 결과, 외교·자사고·국제고는 해당 법 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조 1항은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제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중과학교·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는 이 시기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사고·외고 등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식·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한 시행령 개정만은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보수권 지적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부 발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의에서 박백법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 방법에 대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의도는 불가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같은 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시행령 월권을 막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본인 지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보내더니 국민의 기회만 박탈하느냐, 국민은 봉어·가재·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해당 학교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강남·목동 띄우기, 8학년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대성 기자

## 진옥동의 실천공행... ‘같이평가’로 협업 유도

〈신한은행장〉 〈實踐躬行〉

신한은행 하반기 워크숍  
업계 최초 목표 달성률 기반  
새로운 직원 평가제도 도입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된 2019년 하반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진옥동 은행장이 ‘신성과평가체계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없애고, 모든 영업점 평가에 ‘고객가치 성장’ 지표도 신설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커뮤니티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임원·본부장·커뮤니티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3분기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영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오픈뱅킹, 건전성, 퇴직연금 등 주요 사업 분야의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신(新)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 평가제도’에 대해 심층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이 성장 평가제도의 핵심은 영업점 환경에 맞는 자율적인 영업 추진을 통해 단순 상품판매 중심의 기존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판매 및 사후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내년부터는 행권 최초로 ‘목표 달성률 평가’를 도입한다.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폐지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과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영업 전략

결정 권한을 현장에 위임해 영업점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도 추진한다.

모든 영업점 평가에는 ‘고객가치성장’ 지표를 신설해 고객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을 완전한 프로세스를 통해 권유한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고객 자산관리 노력 및 금융 자산 건강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표통장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고객 자산보호 활동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진 행장은 “단순히 평가체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리더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구성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막힘 없이 소통하는 수평적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후에는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한국 민

속촌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신묘한 마을 등을 둘러보며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 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며 열정적인 팬덤과 충성 고객을 만들어낸 한국 민속촌의 성공 사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 은행장은 실제로 몸소 이행한다는 의미의 자사성어인 실천공행(實踐躬行)을 소개했다.

진 은행장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궁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신한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있으며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 터닝포인트를 만들자. 모든 변화의 정점은 현장에 있으며 결국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서 모든 전략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